



조선

2024 12

(823)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 2 Ⅱ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앞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 1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14 Ⅱ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성대히 개막
- 22 Ⅱ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기념음악회 진행
- 26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30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34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 3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남도 신포시바다가양식 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42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대응의지와 전략 공격력의 절대적우세를 과시한 중대한 시험
- 4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인항공기술연합체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 5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연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였다
- 54 Ⅱ 로씨야연방 군사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연 진행
- 56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 로씨야연방 군사 대표단을 위한 환영연회 마련
- 5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연방 자연부원생태학상 알렉산드르 꼬즐로브동지를 접견하시였다

특 집

- 60 Ⅱ 인민을 위한 길에서

소 식

- 68 Ⅱ 세계체육계에 또다시 파문을 일으킨 조선여자축구
- 71 Ⅱ 우승컵을 들어올리다
- 72 Ⅱ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수여모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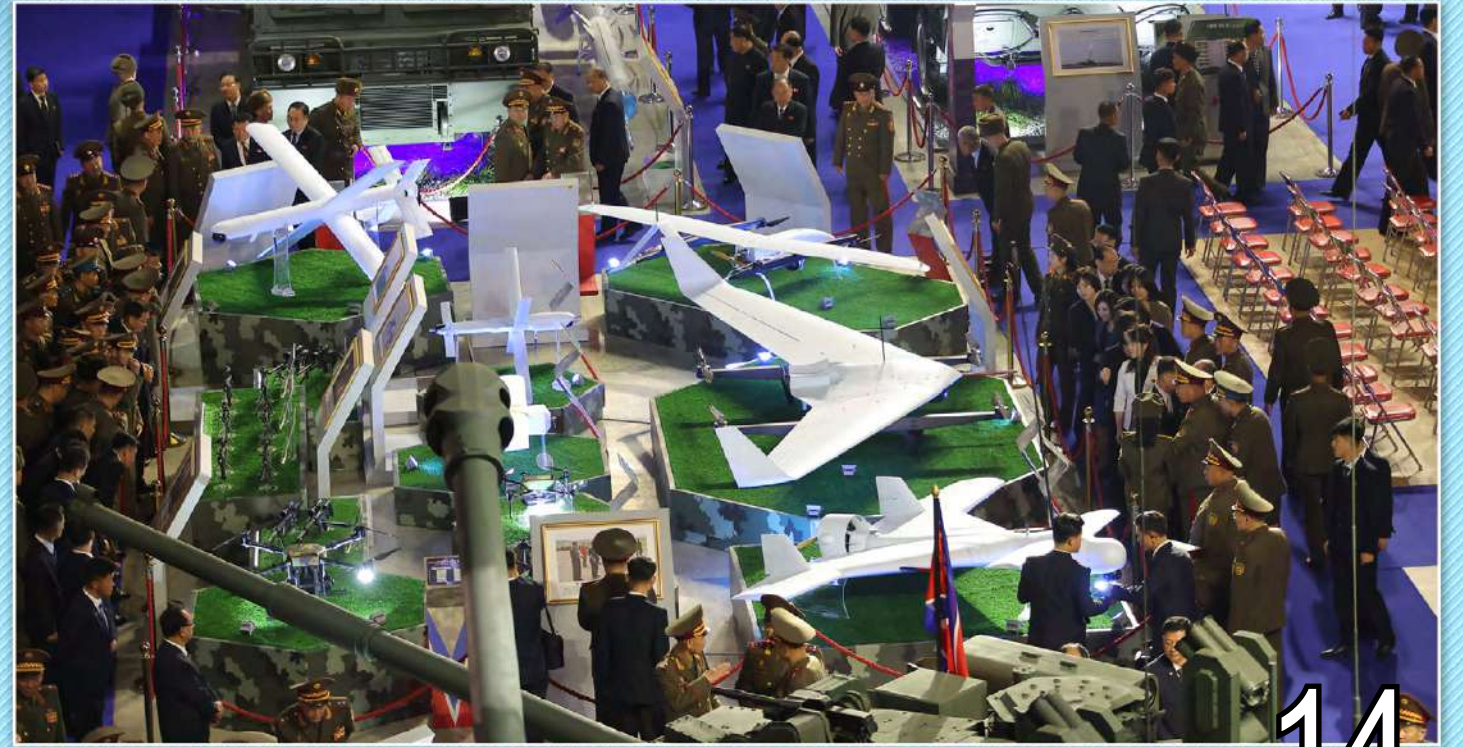
오늘의 조선

- 74 Ⅱ 푸른 꿈을 꽃피워준다
- 76 Ⅱ 제16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

표 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행사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뒤표지: 전위거리의 야경

편 집: 변일진, 김규성, 조철주, 송 룡, 리금주



14



34



42



68



76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앞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15일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앞에서 강령적인 연설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를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전체 대대장들과 대대 정치지도원동무들!

공화국무력의 각 군정기관 지휘관동무들!

동무들!

투쟁과 변혁으로 격동하는 혁명의 전위마다에서 전설적인 우리 군대의 위세와 명성이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 진행되고있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회에 참가한 공화국무력의 전체 대대장, 대대 정치지도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가의 주권사수를 위한 영예로운 전초들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앞당기는 건설장들에서 열렬한 애국충의와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전군의 관병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근년에 력사적인 우리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제시한 방대한 정책적과제들의에도 당강화와 국가의 부흥,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많은 리론실천적과제들이 제기되고 그 하나하나가 다 진지한 노력과 고심을 기울여 정답을 찾고 진척시켜야 할 사업인것으로 하여 항상 일정이 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렇게 평양에 모인 동무들과 아쉬움없이 자리를 같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회합을 이토록 중시하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가.

그것을 여러가지로 설명할수 있겠으나 기본중의 기본을 말한다면 동무들이 바로 우리 무력의 기층에서 그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면서 묵묵히 군력강화의 초석을 억척으로 다져주는 우리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들이기때문입니다.

당의 군령도를 실현하는 군사조직체계, 지휘체계에서 대대라는 군사조직은 말단에 놓여있지만 당과 조국은 동무

들을 언제나 제일 중요한 위치에 세우고있습니다.

대대의 올라리는 비록 느리지 않아도 당과 혁명, 조국과 사회주의라는 크나큰 세계에 살며 병사들을 이끌고 남모르는 헌신의 길을 걷고있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순결무구하고 열렬한 애국충성은 우리 무력의 높은 영예와 전적을 받들어올리는 자양으로 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 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서 꼭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말그대로 전고미문이라고밖에 달리 이름할수 없는 모진 시련과 도전속에서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이 떠올린 모든 기적과 변혁은 수호와 창조라는 이 두 전선을 쏠선 떠맡아안고 당군의 고귀한 명함을 떨쳐온 우리 군의 투쟁행적과 하나로 잇닿아있으며 그 영웅적 공훈사의 갈피마다에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동무들이 새겨온 남모르는 헌신의 자욱이 진하게 어려있습니다.

지금 우리 혁명무력의 기본전투단위 지휘관들인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은 모두가 이렇듯 간고하면서도 영광스러운 10년, 우리 군대의 존재감과 공적의 무게가 뚜렷이 부각된 년대와 함께 성장한 세대입니다.

바로 동무들이 주역을 맡아주었기에 적들과 직접 총구를 맞대고있는 국경선전방들만이 아니라 국가와 인민의 장래운명이 결정되는 모든 전구들을 혁명군대가 맡아서서 전진과 상승의 길을 개척하는 또 하나의 력사가 창조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군건설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는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 군대가 있고 그 길에선 설사 죽는다 해도 영광이라는 고결한 인생관과 결사분투의 숭고한 모범으로써 군인대오를 이끄는 충성스럽고 미더운 군지휘관들의 력량이 육성된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성장한 군지휘관들을 대표한다고 할수 있는 수천명의 핵심골간들, 바로 동무들을 통하여 혁명무력의 충성의 력사와 애국의 전통이 곳곳이 계승되고있음을 굳게





확신하게 된것을 나는 그 무엇보다도 기쁘게,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선로동당의 군대,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강대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하여 이보다 더 명백하게 설명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앞에 선서한 혁명군대 지휘관의 신성한 사명감과 참된 량심으로 겹쳐드는 난관과 고충을 이겨내면서 자기대대를 그 어떤 명령집행에도 철저히 영용하며 완벽한 정예의 전투력량으로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써 우리 당에 크나큰 힘이 되여주고 의지가 되여주고있는 동무들에게 재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바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나온 년대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앞으로의 혁명단계에서도 우리 무력은 그 어느 집단도 대신 설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튼튼한 무장력의 담보하에서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양양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당의 립장은 불변하며 달리 될수가 없다고 강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나는 오늘 동무들을 마주한 기회에 우리 무력의 전체 장병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절대 내려놓지 말아야 할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대해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대들을 잘 준비시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동무들앞에 어떤 과제가 나서고있는가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자고 합니다.

현시기 우리 혁명무력이 맡고있는 전선들은 적지 않으며 그 하나하나 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혁명의 진퇴가 결정지어지는 중요전선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반세계급전선이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싸움준비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는 우리 무력의 기본전선이고 기본임무입니다.

공화국무력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모든 곳에서 적들의 온갖 침해행위를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제압할수 있게, 유사시 부과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무장집단이 싸움마당과 멀어지면 적들이 궤책을 부르면서 덤벼들것이고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류혈로써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림전세에 만전을 기할수록 이 땅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강대하고 번영하는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로 더욱 가까이 다가설수 있습니다.

우리 무력의 전쟁준비가 완성되는 시점이 우리 국가의 주권과 평안이 영구화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무장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무력본연의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사태들은 전체 공화국무력 장병들이 옳은 정세인식을 가지고 싸움준비에 보다 철저할것을 요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모험주의적군사정책을 추구하면서 긴장상태를 사상최악으로 격상시키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도발책동의 위험성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조선반도를 포괄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요소인 미일한 3각군사뻐력이 자기의 위협적성격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완전한 핵동맹으로 변이시키고 미일한 3각군사공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서둘러 출범시킨 미국은 한국과 그 주변에 매일과 같이 전략적 군사장비수단들을 투입하고 나토성원국들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무력을 끌어들여 침략전쟁에 속달시키기 위한 각양각래의 훈련을 맹렬히 벌리고있습니다.

배타적인 군사뻐력강화와 련이은 전쟁실동연습으로 조선반도지역의 전략적환경을 계단식으로 파괴하고있는 미일한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은 군사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불법무도한 동진정책으로 유럽의 안보위기를 불러

온 나토의 범죄적행적을 련상케 하고있습니다.

결국 미국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있으며 그 침략의 예봉은 다름아닌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이며 가장 오랜 교전국인 우리 국가에 집중되고있습니다.

이제는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군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의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지역에 빠져들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것이 하나도 없을 상황입니다.

미국놈들과 한국놈들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들에 접근하고있습니다.

미일한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중범인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습니다.

조선반도안전환경을 시시각각 미국속에 몰아넣는 평화와 안정의 파괴집단의 우두머리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은 우리가 어떠한 전략적선택으로써 우리의 적수들을 다스려야 하는가를 반복적으로 체감케 하고있습니다.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준동이 우심해질수록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행동의 정당성은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있습니다.

핵무력강화로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지 오래며 이제 남은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것뿐입니다.

나는 최근에도 여러번이나 우리의 선택이 바뀔수 없으며 또 바뀌어서도 안되는 지정학적변화와 그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먼 미래의 일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있는 로씨야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천경험을 늘이고 군사적개입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전쟁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있는것으로 하여 보다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말려들고 국제안보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에로 치달고있습니다.

전쟁위험은 지구상 도처에 도사리고있으며 언제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가늠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있는 무력의 사용을 목도하면서 조선반도 역시 무력충돌사태발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우리 무력의 각급은 모든 활동을 전쟁준비에 철저히 지향복종시키며 그 빠른 완성을 위하여 총매진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하루하루는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다그치는데서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공화국무력은 이 천금같은 시간을 백날천날 맞잡이로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그 어떤 군사적사태발전에도 능동성을 잃지 말고 철저히 주동적이기 위한 준비에 모든것을 다해야 합니다.

《전쟁준비완성에 총력을!》, 이것이 혁명의 요구, 현정세의 요구이며 우리 무력의 각급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우리의 정규무장력과 전체 공화국무력이 전쟁에 대비할수 있게 정치군사적강제, 전력증대를 가속해나가는데서 대대들을 잘 준비시키는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 당은 대대를 혁명전쟁수행에서의 기본전투단위로 간주하고 대대강화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습니다.

대대는 우리 무력의 조직체계와 우리 나라의 모든 주객관적조건에서 독자적인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전투단위입니다.

유사시 우리 무력이 당중앙의 전략적의도대로 기민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임의의 정황속에서도 우리의 전법에

따라 주동과 승세를 확고히 틀어쥐는데서 관건은 대대들의 역할입니다.

지금 세계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전쟁들이 립증하는것처럼 지능화, 정보화된 첨단무장장비들이 대량투입되고 작전과 전투가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 싸이버공간을 아우르며 다차원적으로,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에서는 전술적구분대인 대대를 어떻게 강화하고 잘 써먹는가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게 됩니다.

고도의 군사기술로 무장한 적수들과 대적해야 할 전쟁행정에서 적들의 발전된 각종 정찰 및 탐지수단들로부터 군사행동기도를 은폐하고 공격의 불의성을 달성하며 인원과 기재의 생존성을 담보할수 있는 최적의 단위도 대대이며 지형지세가 복잡한 우리 나라의 전투행동지대들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집단도 다름아닌 대대입니다.

때문에 대대는 전투집단편성과 운용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본전투단위, 중요전술단위로 되며 우리 군이 막강한 전투력을 행사하는데서 주역으로 됩니다.

나는 앞으로의 전쟁에서 대대들을 기본단위로 하여 임무를 떨구고 독자성을 부여해주며 적극 활약시키면서 대대들의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합니다.

대대의 위치와 역할에 이처럼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금이 국가적인 최종대사업들을 결속하는

관건적인 시기이고 국가의 안전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한 형세이지만 전군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을 한날한시에 불러 대회와 강습을 소집,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대의 전쟁준비완성이자 전군의 전쟁준비완성이고 대대의 실전능력이자 혁명무력의 전력이라는 우리 당의 확고불변한 대대중시사상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기본임무는 첫째로, 혁명군인들의 정치사상적준비가 전쟁의 승리를 결정한다는 관점에 확고히 서서 대대의 사상정신적정예화를 촉진하는것입니다.

혁명무력의 최강의 무기도, 백전백승의 유일한 담보도 사상에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현대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화되고 첨단군사기술수단이 작전과 전투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사상정신적압승을 우선시하는것은 언제나 오늘에나 래일에나 불변한 우리의 싸움법이고 승리철학입니다.

공화국무력은 먼저 사상정신적으로 적을 압도하여야 합니다.

주체의 사상론을 주장하는 우리는 마땅히 군사기술적강제에 앞서 정신도덕적우세로써 적들의 악질적인 반공



대결의식을 확고히 제압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적사상과 도덕으로 필승하는 혁명장군의 위용을 펼쳐야 합니다.
공화국무력의 모든 관병들이 지녀야 할 혁명장군의 사상정신적특질은 다름아닌 당과 혁명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열렬한 애국심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정신, 투철한 계급의식과 원수에 대한 격멸의지입니다.
당에서는 그 숭고한 모범으로 우리 혁명무력의 1세대, 전화의 영웅들을 일관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을 혁명무력의 1세대, 전화의 영웅들과 같은 사상정신력의 강자들로 역세계 키우는것을 대대강화의

제일 선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대대사업의 확고한 지향점도 여기에 있고 그 실효도 바로 여기에서 뚜렷이 나타나야 합니다.
군인들속에서 항일빨찌산들과 1950년대 전승세대처럼 원수와 끝까지 싸우다 붉은기를 안고 뺨치고 서서 죽겠다는 영웅정신이 펄펄 끓게 하여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군인들속에 투철한 주적관과 대적결전의지를 깊이 심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대적한 미국놈들과 한국놈들은 극악한 반공사상, 멸공정신을 고취하면서 극도의 전쟁객기를 부러대고

있습니다.
반공이 미국과 한국의 국시라고만 인식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반공이 골수에 들어차고 멸공으로 길들여진 간악한자들, 그 계급적본성으로 하여 꿩질때까지 칼을 버리는 철저한 대결광들이라는것을 군인들 마지막 한사람까지 똑똑히 알고 한시도 잊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적관이 흐려진 군인에게는 재워진 총탄도 불발탄에 불과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녕은 무장에 앞서 군인들의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생명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적들을 응징하고 피멸시키기 위한 성전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도록 분발시켜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대대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특정한 계기와 정황에서만 하려고 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강조합니다.
전쟁발발이 기정사실화되고 거울초읽기가 시작되었다고도 할수 있는 립전상황에서의 사상공세는 물론 일상시 군무생활과 군사과업수행의 전 공정과 계기가 군인들의 정신무장과정으로 일관될수 있게 참신한 교양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하는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군인들에 대한 교양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정으로 일관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귀한 자식, 덜 귀한 자식이 따로 없듯이 군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따듯이 품어안아 보살펴주는 진정은 군인

들에 대한 말없는 교양으로, 실효가 확고한 감화로 됩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군인들을 위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하며 사랑과 정으로 군인들의 사상이질화도 막고 정신력도 불리일으켜야 합니다.
동무들은 이것을 나의 명령이기 전에 군인들의 친형제가 되어야 할 지휘관들에게 하는 당부로 새겨야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서야 할 군인들에게 더욱 사랑과 정을 기울이며 립전의식을 심어주고 영웅적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기본임무는 둘째로, 대대의 실전능력제고에 총력을 집중하여 혁명전쟁의 승리를 군사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담보하는것입니다.
우리 무력을 질적으로 강화하고 혁명전쟁에 대비하자면 정치사상강군화에 군사기술강군화를 배합하여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은 기술적으로 로후한 군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적을 타승할수 없다는것을 시시각각 실증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도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할 필수성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전장에는 사상정신적으로뿐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적들을 압도할수 있는 전투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공화국무력을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데로 직진하여야 합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은 변화되는 현대전양상과 그에 부응한 강군건설의 주되는 방향을 똑똑히 인식하고



모든 군인들을 정신적으로뿐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된 용맹한 싸움군, 첨단화된 무기, 전투기술기재들도 능숙히 다루고 그 어떤 전투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는 만능병사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전쟁마당에서 승리를 확신할수 있는 실전능력은 강도 높은 훈련속에서 다져집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의 대대들의 전투태세점검과정에 나타난 일련의 허점과 공간들을 지적하시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무장으로 수호해야 할 군대에 있어서 전투훈련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제1의 혁명과업이며 이보다 더 사활적이고 중대한 혁명과업은 없는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은 늘 전장환경을 뇌리에, 땅막에 새기고 살아야 하며 당의 훈련혁명 5대방침을 틀어쥐고 전투임무수행위주의 실용적인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관, 군인들이 당의 군사작전 명령을 정확히 구현할수 있는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의 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제고하고 대대의 동원력과 전투능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쟁의 발전양상과 변화추이에 맞게 훈련내용과 형식, 방법을 혁신적으로 탐구적용하며 전장의 관세를 주도할수 있는 우리 식의 혁신적인 전법과 전투방안을 부단히 연구하는것을 비롯하여 작전단위뿐만아닌 전군의 전투단위들이 훈련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요구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실전능력제고와 함께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정상적동원준비가 곧 전쟁준비이라고 하시면서 전군의 대대안에 무기애호기풍과 무기관리문화

를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우리 국가주변에서 미국과 한국괴뢰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공모결탁하여 도발적인 불장난을 계속하고있는 상황은 전투경계근무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고 먹장구름이 짙게 밀려들면 번개가 일기마련인것처럼 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무겁게 떠도는 이 땅우에서 기필코 군사적충돌이 있게 될것은 명백하며 따라서 모든 초소와 진지들을 불퇴의 요새로 다지고 각종 전투근무를 강화하여 적들의 사소한 도발책동도 즉시에 철저히 제압분쇄할수 있게 항시 준비되어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기본 임무는 셋째로, 자신들의 정치사상적, 군사실무적준비에 대대의 전투력과 싸움에서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실력제고의 된바람을 일으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부터 구령을 내리기 전에 전위에 설줄 알고 높은 자질과 조직지휘력으로 당이 맡겨준 그 어떤 임무도 가장 철저하게, 완전무결하게 집행하는 야전형, 실력가형, 행동형의 지휘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서 한치의 탈선도 모르는 신념과 의리의 인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온몸을 붉게 물들이는 사상의 강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의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당의 의도에 맞게 대대를 지휘통솔할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하루빨리 키워야 할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대대지휘관들이 혁명적 사업방법과 전투적인 생활기풍, 고상한 품격의 체현자로

철저히 준비하며 자신들의 수범과 군관, 군인들에 대한 실속 있는 교양으로 대대를 강한 군기와 정규화적면모를 갖춘 전투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히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동무들!

동무들은 우리 무력의 기층을 지켜선 대대의 주인일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무력의 골간을 이룰 군정간부후비들입니다.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했던 군관들의 태반이 지금은 상급지휘기관의 일군들로 성장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동무들도 이제 수년안팎에 분명 대대계선을 벗어나 보다 높은 직무를 맡아 수행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사업과 정치사업, 후방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귀중한 체험을 하면서 경험과 교훈을 터득하고 지휘관, 정치일군으로서의 체모와 자질을 갖추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시절만큼 일을 많이 배우고 보람있는 시절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군지휘관들을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을 거친 군관들로 꾸리는것을 하나의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세우고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에 일관하여 강군화로선 실현에서 중핵으로 되는 군정간부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대대는 군지휘관들이 성장하는 터전이며 여기서 영원히 백전백승할 우리 군대의 미래가 자라납니다.

새시대 강군건설과 전쟁승리의 기본열쇠가 핵심력량의 준비에 있다고 볼 때 동무들은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습니다.

동무들은 혁명무력의 앞날을 걸머진 골간들답게 수준과 자질, 품모를 가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지금의 하나하나의 사업들에 심혈을 기울이고 열정을 다 바쳐 당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해야 합니다.

동무들!

현 주객관적형세에서 전쟁준비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입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털끝만큼이라도 침탈하려드는 경우 반격하자고 해도 그렇고 일단 발발된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자고 해도 대대강화는 반드시 확실한 진전을 이룩해야만 하는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로 되고있습니다.

동무들은 주권사수, 국권수호에 대하여 구호나 웨치고 맹세나 다져서는 안되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투 임무가 맡겨지든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고 결의하는 대대가 아니라 명령을 받으면 즉각 행동하고 싸울줄 아는 대대, 그 어떤 임무를 주어도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는 만능대대로 준비시키는것, 이것이 우리 무력의 모든 대대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고 이번 대회의 정신입니다.

모두다 당과 혁명이 부여한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대대의 실전능력강화에서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오래동안 버리고 다져온 강위력한 군사적억력으로 국가와 인민을 수호하고 영예로운 전승을 앞당겨 쟁취하기 위하여 총매진해나아갑시다.

가장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

우리 무력의 전체 지휘관동무들!

사랑하는 전군의 장병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모두다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평안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21일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대대강화를 전군강화의 관건적고리로 내세우는 당중앙이 이번 대회에서 제시한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쟁준비완성에서 새로운 력동적전환을 안아오으로써 우리 무력의 강대함과 불패함을 굳건히 담보해나갈 비상한 열의에 넘쳐있는 참가자들에게 전투적 격려를 보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대는 우리 군을 정치사상 강군화, 군사기술강군화하는 행정에서 당중앙이 시종 일관 중시하고 의거하는 믿음직한 근거지이며 대대의 전투력이자 우리 무장력의 전력임을 재삼 강조하시면서 대대지휘관들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대대강화의 기준과 목표, 내세우는 근본요구를 정확히 새기고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새시대 강군화로선관철에서 척후대, 선봉대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무력의 기본전투단위 지휘관들인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신념화, 특질화된 충실성과 견결한 의지, 불굴의 분투가 깃든 하나하나의 성과들이 주추로 고여지고 기둥으로 굳건할 때 대대강화에서는 반드시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 군의 정치군사적강세, 전력증대는 백배하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우리 무력의 모든 대대를 당중앙의 명령일하에 즉각 행동하고 싸울줄 아는 대대, 그 어떤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는 만능대대로 준비시킬데 대한 대회의 기본정신을 금후 정치군사활동에 완벽하게 구현하며 군정배합의 힘으로 림전태세완비를 강력히 전인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었다.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성대히 개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계를 모르는 강대한 힘의 증대, 거대한 급진도약의 위세를 과시하며 11월 21일 수도 평양에서는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가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은 역사적인 제8차대회에서 국방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 인민군대를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만들데 대한 웅대한 국방발전전략을 선포하고 군사기술강군화를 목표로한 제2차 국방공업혁명을 강력히 주도하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억제력고도화를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최종대선결과제로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완강히 견인추동하여 나라의 자위적국방력 강화에서 거대한 질량적, 기술적변혁을 련속적으로 가속화함으로써 국권수호, 평화수호의 초강력적인 전력을 부단히 증대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계를 모르는 강대한 힘의 증대, 거대한 급진도약의 위세를 과시하며 11월 21일 수도 평양에서는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가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현대성과 선진성, 타격의 정밀성과 위력에 있어서 또 한번 갱신진화되고 련속적인 신종개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전략무기, 전술무기들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국방과학기술집단의 최신창조물들이 집결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행사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천재적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력, 불철주야의 헌신으로 반만년민족사가 숙원하는 부국강병의 역사적대업성취를 위한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향도시는 강대무비한 조선의 힘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행사에 참석하시였다.

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에 대한 공화국 무력의 절대적인 신뢰와 경의심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세차게 분출되였다.

개막식을 기념하여 공군비행대의 시위비행이 있었다.

평양의 하늘가에 환희로운 삼색비행운이 새겨졌다.

무장장비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군수부문 지도간부들, 국방성 지휘관들과 함께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열렬한 박수가 터져올랐다.

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조선인민군 각 군정기관의 주요지휘관들,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춘룡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부국강병의 로정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한 우리 국가안전 환경이 요구하는만큼 각종 무장장비들을 계속 갱신하고 첨단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보다 높은 군사기술력,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함에 모든것을 다하여 튼튼한 국방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할것이라고 확언하시었다.





세우게 되는 이 시각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새시대를 펼치시고 우리 국가와 인민이 무비할 존엄과 힘을 지닐수 있게 하여주시 위대한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우리모두를 무한히 격동시키고있으며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강위력한 힘의 실체들에 어려 있는 열화같은 애국정신과 무한대한 창조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안아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을 선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전시회가 가지는 정치군사적의의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국방분야에서의 혁혁한 성과들은 적들이 우리에게 가해오고있는 각이한 위협들뿐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전망적인 안보위협들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는 능력과 안전담보를 확고히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하며 우리 국방공업은 혁명의 매

단계, 매 시기, 매 정황이 요구하는 군사활동들을 가장 적실하고도 철저하게 받침하는 첨단공업으로 갱신되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우리 국가의 지위를 튼튼히 지키는 전략적인 보루로 더한층 강화되게 되었다고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한 우리 국가안전환경이 요구하는만큼 각종 무장장비들을 계속 갱신하고 첨단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보다 높은 군사기술력,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함에 모든것을 다하여 튼튼한 국방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수호를 위한 정의로운 힘의 역사를 줄기차게 새겨가시는 희세의 령장계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드리며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성업에 일심매진할 엄숙한 결의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된 무장장비들을 돌아보시며 백전필승하는 조선혁명의 역센 숨결을 지켜주고 우리 국가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떠받들기 위해 우리 당의 붉은 국방전사들이 진함없이 바쳐가는 고결한 애국충성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무력의 무진한 군사기술적강세와 그를 역척같이 뒤받침하는 자립적방위산업의 경이적인 진보는 그 어떤 고생과 시련도 강인하게 이겨내며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당 강군건설로선과 국방정책을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지지성원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궁지이고 자랑이며 값비싼 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력의 장엄한 발전상과 눈부신 전망성을 과시하며 성대하게 개막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세계를 굽어보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리상, 조선의 힘에 대한 자부심을 배가해주고 전면적국가부흥을 향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진군을 힘있게 고무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될것이다.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기념음악회 진행

우리 국가의 강대함을 또 한번 궁지롭게 떨치는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2024》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11월 21일 밤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조선인민군 각 군정기관의 주요지휘관들,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일군들,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천만년미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부국강병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력사의 장로에 위대한 복무와 결사분투의 자욱을 거룩히 새겨가시며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이 성취되는 국가 방위력강화의 영웅전기, 강국건설의 새로운 격변기를 펼쳐 가시는 천하제일명장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격정의 환호성으로 분출되었다.

종합군악례식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수령송가들과 혁명군가들, 조국찬가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결코 쉽게는 지켜낼수 없었던 국권수호의 력사적중임을 떠메고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라는 성스런 글밭이 새겨진 영광의 군기높이 수령보위의 제일결사대, 공화국정권의 수호대,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랑스러운 연혁을 빛내여온 조선인민군의 영웅적전투정신, 숭고한 애국주의를 격동적인 음악세계에 담아 구가하였다.

사상적으로 정예화되고 무장에서 최강인 혁명무력의 전위적역할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인민이 쟁취한 장구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사에 대한 추억을 불러오는 곡목들에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안녕도, 자주와 정의, 진정한 평화도 무비의 자위력에 의해서만 굳건히 담보되며 세기를





이어 펼쳐온 위훈과 공적우에 더욱 견결히 수호해나가야 할 국가의 존엄이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강성의 꿈과 이상이 있음을 공연은 감명깊게 펼쳐보이었다.

이 땅의 천만운명을 품어안고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친근하신 아버지의 은혜로운 품,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영원히 충성다해 받들어갈 온 나라 인민의 역척불변의 신념을 분출시킨 기념비적찬가들로



출연자들은 결코 쉽게는 지켜낼수 없었던 국권수호의 역사적중임을 떠메고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라는 성스런 글밭이 새겨진 영광의 군기높이 수령보위의 제일 결사대, 공화국정권의 수호대,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랑스러운 연혁을 빛내여온 조선 인민군의 영웅적전투정신, 숭고한 애국주의를 격동적인 음악세계에 담아 구가하였다.

절정을 이룬 음악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끝났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절대적권위와 주체위업의 필승 불패성을 세계최강의 군력으로 결사옹위해갈 맹세드높이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으로 공연장소는 또다시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음악회는 뜻깊은 전시회개막의 밤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피해지역에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하고 현대적인 주택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워 리상적인 《농촌문화도시》로 전변시키는데 대한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나선 전체 건설자들의 힘찬 애국투쟁에 의하여 재난을 당한 조국의 서북부 섬지역에 련일 훌륭한 새 농촌마을들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며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아름다운 현실을 힘있게 과시하고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주군 어적리와 신의주시 하단리의 피해복구지역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4일 평안북도 피해복구건설현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용원동지, 리일환동지와 당중앙위원회 해당 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안북도 위원회 책임비서 리희용동지, 피해복구건설에 동원된 인민군부대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주군 어적리와 신의주시 하단리의 피해복구지역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몇달전 큰물로 인한 위험사태가 조성되었을 때 지역인민들을 긴급구조하며 사품치는 물결에 잠긴 마을들을 아프게 바라보던 기억이 앙금처럼 가슴속에 내려앉아 그사이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억척의 제방들이 솟아나고 안전지대에 독특한 형식을 자랑하며

경쟁적으로 일떠서고있는 여러 류형의 도시형농촌살림집들을 보고나니 감개함을 금할수 없다고, 정말 보람있고 정확한 결정을 했으며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힘으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에 항상 완벽해온 우리 군대와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라는 영예로운 명성에 언제나 충실해온 우리 청년들이 인민사수의 최전구인 여기 피해복구전역에서도 조국의

부름과 혁명의 요구에 어긋남이 없이 특유의 용맹으로써 비상한 건설성과들을 창조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자들의 빛나는 위훈과 혁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방대한 이번 피해복구건설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의 힘을 믿게 되었다고, 자신께서는 이것을 그 어떤 결실보다도 더 중요한 정신적 재부로 간주한다고, 우리는 무진막강한 우리의 자력을



또 한번 강렬히 체험하고있으며 자생자결의 정신과 성스러운 애국투쟁속에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해지고있음을 당당히 확신하고있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만이 지니고있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불가항력의 정신과 힘에서 마땅히 우리는 자부를 가져야 하며 그의 무궁무진한 과시로써 보다 뚝뚝하고 보람있는 래일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불행을 당한 인민을 위하고 재난을 입은 조국의 상처를 가시는 애국애족의 영예로운 투쟁에 계속 충분기 하여 반드시 목표했던바 그대로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무슨 일이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남은 공사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복구건설에 대한 평가가 좌우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열배, 백배의 책임과 분투와 용기로써 긴장한 투쟁을 련속 이어감으로써 마감기간에 더 큰 혁신적성과를 들어올리자고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를 질적으로 마감하자면 기능공력량을 보강해주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줄 일련의 문제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해당 대책들을 지시하시였으며 피해복구전투를 12월당전원회의를 맞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데 대한 결심을 내리시고 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청년들과 군인들이 피해복구건설전으로 진출해 떠나갔는데 어느덧 계절이 바뀌였다고, 그사이 감탕만 쌓였던 재해지에 하나의 《농촌문화도시》가 자리를 드러냈는데 우리 젊은이들의 창조적투쟁으로 이룩한 변화가 계절의 변화보다 더 빠르다고, 우리 청년들과 군인들이 그동안 조국앞에, 시대앞에 뚝뚝하기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다시금 거듭 평가하시면서 자기의 창조물들마다에 애국의 땀을 진함없이 바쳐가고있는 미더운 우리 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이 이제 곧 이곳에 희한한 천지개벽의 력사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14일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당중앙이 제시한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웅대한 력사적과제를 기어이 훌륭한 결실로 펼쳐놓을 신심에 넘쳐 펼쳐나선 인민군인들의 기세찬 투쟁에 의하여 전국의 20개 시, 군들에서는 우리 식의 문명과 부흥을 상징하며 지방공업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날에날마다 더욱 뚜렷한 면모를 과시하고있다.

지방공업공장건설에서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한 당중앙의 강령적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에 동원된 관병들도 마감시공의 질제고에 총력을 집중하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료공장, 일용품공장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설비제작 및 조립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긍지로온 지방발전

혁명의 첫째 투쟁에 펼쳐나섰다는 중대한 책임감에 무한히 충실하여 거창한 세기적변혁을 안아오기 위한 보람찬 건설사업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발휘함으로써 인민의 재부로 길이 전해갈 귀중한 실체들을 손색없이 창조해가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충심으로 감사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년말이 다가오고 공장완공이 마감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모든 건설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조급성을 극복하고 건축공사를 더욱 치밀하게 내밀어 마지막까지 시공의 질적수준을 완벽하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설비제작 및 조립실패를 알아보시고 이 사업이 순수 실적총화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운영 첫단계에서부터 모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제작하고 설치와 시운전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술자, 기능공양성정형과 원료기지 농사정형,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자재확보정형을 비롯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의 운영준비실패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향과 방도도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이 완공되는것과 동시에 생산에 진입하여 시작부터 은을 내야 한다고, 말그대로 공장이 광광 돌아갈수 있게 모든 준비사업을 완강하게, 착실하게 추진하여 지방발전 10년혁명의 첫째부터 성공적인 성과로써 지방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건설은 단순한 건설사업이기 전에 우리 당의 원대한 정책이며 지방인민들의 세기적속망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과제라고, 그렇기때문에 공장건설에서 실적수자만을 론하기에 앞서 깨끗한 량심을 묻는것이 보다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하루하루에 애국의 진한 땀과 성실한 노력을 바쳐나간다면 지방변혁의 눈부신 시대는 반드시 현실로 펼쳐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렬한 애국충성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증만된 군인건설자들이 진함없는 과감한 투쟁으로써 《지방발전 20X10 정책》실행의 첫해를 빛나게 결속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군부대관병들은 김정은동지와 위대한 우리 당의 령도에 언제나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의 정신적기질을 공사장전역마다에서 남김없이 떨침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애국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갈 군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년말이 다가오고 공장완공이 마감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모든 건설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조급성을 극복하고 건축공사를 더욱 치밀하게 내밀어 마지막까지 시공의 질적수준을 완벽하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19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요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지역의 당 및 행정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지방공업공장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지방발전의 새시대를 알리는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정책이 책정되어 그 집행을 위한 첫해의 투쟁을 시작한 올해에 벌써 20개 시, 군들에서는 당결정관철의 확신성있는 성과들이 달성되고 전국의 동시적이고 균형적이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는 우리당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전망성이 현실적으로 입증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체로 생산한 기계설비들의 제작수준과 조립실태, 건축공사정형 그리고 원료, 원자재준비와 기능공양성실태 등을 료해하시고 지방공업공장들의 경영과 관리, 전망적발전방향에 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2024년 12월전원회의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사에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첫해 사업정형을 정확히 총화하고 이룩한 경험과 발전성과를 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새 문명을 지향, 창조하는 끊임없는 건설혁명의 시대적요구와 임의의 방대한 건설사업들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추진시켜나가는데서 필수적으로 나서는 선결적인 과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을 연구하고 국가적으로 조치할 문제를 당중앙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할데 대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올해에 진척시켜온 20개 시, 군들의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완벽하게 결속하는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들과 2025년도 지방건설계획작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시를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남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지구에 새로 일떠서고있는 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장을 찾으시고 공사실태와 양식장조성 및 관리운영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7월 15일 력사적인 지방경제발전관련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각 지방의 경제적자원과 잠재력총체를 실정에 맞게 바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계획을 옹계 작성하고 중앙의 강력한 지원밑에 지방경제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울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인 발전궤도에 올려 세울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가능성을

확증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 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포치하신 과업에 따라 지난 몇개월간 공사를 진행해온 중요지방건설정책대상이다.

당중앙의 직접적인 관심과 배려에 의하여 사업소에서 리용할 각종 어구자재와 수지배, 양식모선을 비롯한 필수 생산수단, 설비, 장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지고있으며 가공장에 설치할 설비일식의 제작과 확보도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규제한 매 지방의 고정건설대상들외에 지역의 각이한 자원과 자연지리적환경을 적극 리용하여 지역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 역시 당의 지방경제발전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우리는 지방들에서 자체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자립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매 시, 군들의 조건과 환경을 자기 지방경제발전에 옹계 리용하기 위한 전망적인 발전 방향과 계획부터 정확히 작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번 대상건설설계사업을 통하여 산업시설설계분야에서도 비과학적이며 실리성이 없이 일률적으로 평면을 조직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성, 경영관리의 편의성을 위주로 하는 다양한 공간리용방식을 적극적으로 살린 설계에 대한 새 개념들을 터득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추이로 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로, 산업시설설계에서의 부진이 극복된것으로

평가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의 해당 기관들에서는 선진적인 바다가양식업의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보급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틀어쥐고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재 건축공사실태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전까지 올해 중요정책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완전무결하게 결속하자면 기능공력량을 더 증강해주는것이 필요하다고 결론하시고 해당한 포치사업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잘 건설, 운영하여 바다가양식의 본보기로 만들고 온 나라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잘 건설, 운영하여 바다가양식의 본보기로 만들고 온 나라에 적극 일반화해야 한다고, 국가적으로 해안연선의 시, 군들에 바다가양식을 활성화할수 있는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실현하자면 나라의 모든 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지방들이 발전할 가능성을 최대한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적극 일반화해야 한다고, 국가적으로 해안연선의 시, 군들에 바다가양식을 활성화할수 있는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실현하자면 나라의 모든 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지방들이 발전할 가능성을 최대한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장에 대한 현지도는 거폭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방중흥의 역사적위업수행에서 각 지방, 지역들이 자기 발전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수 있는 명확한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을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에서 적극 추진할수 있게 하는 강력한 실천적담보를 마련해준 중대한 계기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대응의지와 전략공격력의 절대적우세를 과시한 중대한 시험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7 68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 001.2km를 5 156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되었다.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국가의 전면적부흥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해나가는 우리의 위업은 가장 적대적이며 위협적인 적수국가들의 악랄한 도전과 가증되는 전쟁위기를 동반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들이 핵동맹으로 진화되고 최근 들어 사상최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있는 미제와 한국피뢰들의 광적인 무력증강과 도발시도들, 공화국정권을 표적으로 하여 때없이 람발되는 위협적인 망언들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환경에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참을수 없는 분노와 보복의지를 촉발시키고있다.

적아간의 힘의 균형의 파괴가 곧 전쟁이라는 역사의 교훈적인 법칙을 심각히 상기시켜주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항상 적을 억제하고 정세를 관리할수 있는 절대적힘의 필수성과 그 부단한 제고의 당위성을 더욱 뚜렷이 확인

시키고있으며 그 어떤 군사적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적의 도발기도와 전쟁의지를 사전에 제압분쇄할수 있는 억제력으로서의 전략무기의 출기찬 경쟁창조를 요하고있다.

미국과 추종무리들의 침략적성격의 모험주의적인 군사적준동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선택과 그 강력한 실행의 절박성이 더욱 부각되고있는 시기에 날로 급진비약하는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절대적강세를 과시하는 새로운 실체가 또다시 출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의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미사일총국에 하달하시고 10월 31일 아침 공화국 전략무력의 절대적우세를 영구화하는데서 획기적리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영예를 위하여, 한걸음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시험발사 성공적으로 단행

양보하지 말아야 할 평화수호의 의무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전쟁과 패권,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정의로운 새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증대시켜온 조선의 힘과 정신으로 빛어낸 초강력의 절대병기가 세계가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힘의 태동을 일으키며 려명이 밝아오는 화선으로 진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권과 절대적안전, 발전권을 철저히 수호해야 하는 가장 숭고하고도 무거운

사명을 지니신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발사장에 나가시어 전략무기시험발사준비정형과 계획을 료해하시고 중앙지휘감시소를 차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갱신한 새로운 초강력공격수단, 최종완결관 대륙간탄도미싸일이 자태를 드러낼 려사의 시각을 앞둔 발사장은 세계최강에 도달한 우리 국가 전쟁역체력의 과시로써 반공화국핵대결야망에 헛떠있는 가장 포악한 적수들을 전률케 할 전체 국방과학자들과 전략미싸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을 다스릴수 있고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이며 여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국가핵무력강화로선관철에서 국방과학부문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병들의 의지로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세계최강의 전략미싸일의 가공할 위력을 과시할 순간이 도래하였다.

발사준비끝!

김정은동지께서 최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 승인하시자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대장은 영예의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 명령을 하달하였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굉음과 함께 지구상의 온갖 악과 불의를 다스릴 조선인민의 활화로 치솟는 멸적의기와 적개심을 재워안은 절대적힘의 실체가 거세찬 화염으로 지면을 눌러딜고 위압적인 자태를 떠올렸다.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7 687. 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 001. 2km를 5 156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되였다.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발사현장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의 시험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 수단개발과 제작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당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건설전망계획에 따라 공화국 전략무력이 《화성포-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데서 제1의



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며 또한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나가는 로정에서 필수적과정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최근에 목격하고있는 적수들의 위협한 핵동맹강화책동과 각양각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은 우리의 핵무력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우리는 그 어떤 위협이 국가의 안전영향권에 접근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안전상황과 가증되는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들은 우리로 하여금 현대적인 전략공격 무력을 계속 강화해나가며 핵대응태세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강화로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삼 명백히 확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무비한 전략핵공격능력을 만천하에 유감없이 소개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당과 정부,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최고의 감사를 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을 다스릴수 있고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이며 여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국가핵무력강화로선관철에서 국방과학부문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요구를 관철함에 항상 충직하고 절대적인 우리 국방과학기술집단이 보다 훌륭한 국방발전성과들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에 언제나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절대적위세를 또 한번 들어올린 력사의 지점에서 이 위대한 사변의 주인공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인항공기술연합체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공격형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리병철동지와 조용원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총경리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새로 개발되고있는 공격형 무인기들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시험을 보시였다.

지상과 해상의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리용할수 있게 제작된 자폭공격형무인기들은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있다.

시험에서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타격권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정밀타격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발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무인항공기술연합체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군수부문에 결정지시한 사항들을 추진하는데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하루빨리 계열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적판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수단으로 리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있다고, 군사활동에서 그 사용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있으며 생산비용이 적고 생산공정이 단순한것으로 하여 새로운 영역에서 타격력의 한 구성부분으로 활용하는것이 용이해지고있다고, 무인기들이 크고작은





시험에서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타격권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정밀타격하였다.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아마도 전세계의 군부가 다 인정하고있을것이라고, 이것은 오늘날 군사적측면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등장한 추이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같은 객관적변화는 군사리론과 군사실천, 군사교육의 많은 부분을 갱신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제기하고있으며 우리 국방과학 및 교육부문이 신속한 행동실천과 노력을 배가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각이한 무인기들을 생산도입할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있으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법상측면에서도 새롭고 유망한 전술조법들을 결합적용할 전망성을 찾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최근 우리 당은 군사정책적으로 무인무장장비체계들을 작전방안들과 교전원리에 완벽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로선을 중시하며 계속 보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무인무장장비 발전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피력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중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무인항공기술련합체사업에 대한 현장실무 지도는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무인무장장비체계들의 질적인 발전도약을 강력히 추동하고 그 절대적우세로 전방위적공간에서 잠재적인 도전과 위협들을 능동적으로 억제관리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준 리정표적인 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발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무인항공기술련합체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군수부문에 결정지시한 사항들을 추진하는데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하루빨리 계열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러시아연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러시아연방 군사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소브동지를 접견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29일 러시아연방 군사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소브동지를 접견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5개월만에 평양을 다시 찾은 벨로우소브동지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친선적이며 신뢰적인 담화를 나누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보내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동지의 친근한 인사를 벨로우소브동지가 정중히 전해드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존경하는 블라디미르 푸틴동지에게 보내는 따뜻한 동지적인사를 전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벨로우소브 국방상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안전보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 및 호상협조, 관계발전을 추동하는 유익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날로 첨예화되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 발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최근 미국이 취한 반러시아적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립장을 밝히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국과 서방이 끼여브당국을 내세워 자국산 장거리타격무기들로 러시아령토를 공격하게 한것은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개입으로 되며 반러시아 전쟁의 침략적인 실체로 전면에 부상한 이상 러시아가 적대

세력들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방위권행사로 된다고 하시면서 미국을 위시한 도발세력들이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여 리로울것이 없다는것을 명백한 행동신호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러시아정부와 군대가 결행한 대우크라이나대웅타격은 무분별한 군사모험주의에 매달리는 미국과 서방, 우크라이나에 사태의 심각성과 러시아의 강경대응의지를 알리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제국주의패권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령토안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력한 조로관계는 량국인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안정을 담보하는 힘있는 안전보장장치로 된다고 하시면서 지난 6월 조로평양수뇌상봉에서 이룩한 합의에 따라 두 나라 관계를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제반분야에서 보다 활력있게 확대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존경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동지와 러시아정부와 군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전하시면서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것을 다시금 확인하시었다.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연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자주와 정의실현을 공동의 리념으로 하는 불패의 동맹관계, 전략적동반자관계로 승화발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긴밀한 뉴대는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각별한 동지적우의와 신뢰속에 전면적개화기를 펼쳐며 날로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련방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쑈브동지와 그가 인솔하는 군사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연이 11월 29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의 벋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쑈브동지와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정천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국방성 지휘관들, 각급 군사 교육단위 교직원, 학생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 문화 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공연을 보았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찌고라동지와 대사관 성원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었다.



남성합창과 군악례식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신성한 조국의 존엄과 영광을 위해, 위대한 승리를 위해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떨쳐온 조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과 불굴의 기개를 담은 명곡들이 울렸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견결히 수호해나가고있는 로씨야 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반영한 《정의의 싸움》, 《나의 로씨야》, 《어머니조국》을 비롯한 노래들은 관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위한 환영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11월 29일 저녁 4.25문화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로씨야련방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소브동지가 인솔하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쎬고라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정천동지, 조춘룡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주요간부들과 국방성 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준중사령관들,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벨로우소브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맞이하였다.

연회에서는 노광철동지가 연설을 하였다. 이어 안드레이 벨로우소브동지가 답례연설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쨌동지의 건강을 축원

하여, 조로 두 나라 무력사이 협조관계의 가일층 확대강화를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시종 동지적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화기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자연부원생태학상 알렉산드르 꼬즐로브동지를 접견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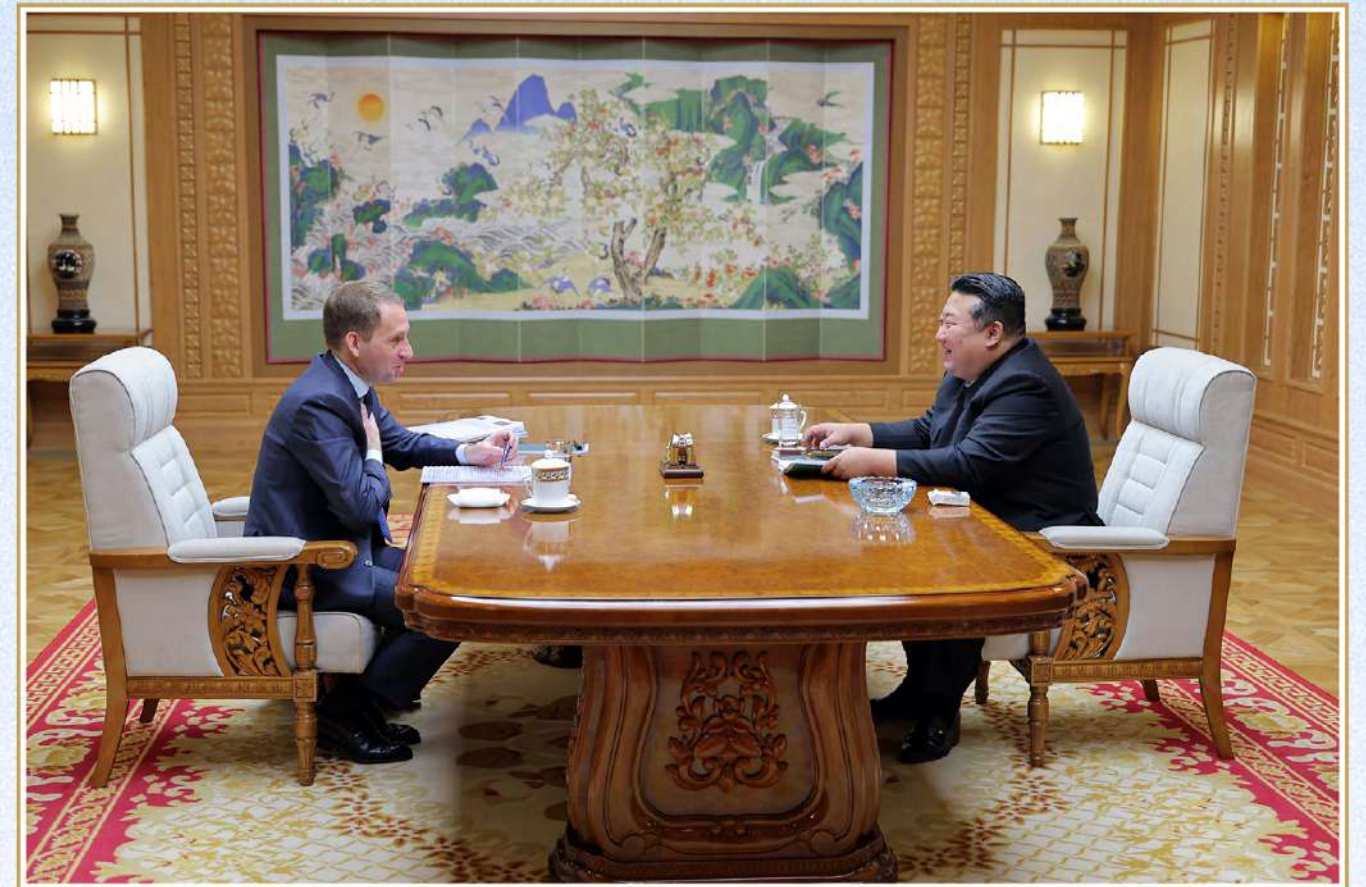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18일 조로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1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정부 대표단 단장인 자연부원생태학상 알렉산드르 꼬즐로브동지를 접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알렉산드르 꼬즐로브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조약이

체결된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연대와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확대심화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데 맞게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더욱 폭넓게, 계속 다각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공영과 발전을 호상 강력히 추동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담화는 화기롭고 진지하며 벗들사이의 따뜻한 감정과 친근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4년 9월

인민을 위한 길에 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그대로 인민사랑의 력사였다.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인민이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신조였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애국도 나오고 혁명도 시작된다고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조선로동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는것을 자신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시였다.

인민이라는 말은 그이의 한생을 총칭하는 대명사이기도 하다.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 헌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품이고 정치신조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그대로 당의 로선과 정책이 된다고 하시였다.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1년 9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10년 6월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감자작황을 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2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인민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신 물음은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선생으로 내세우며 생애의 전 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였다.

공장에 가시면 로동자들의 기쁨은 손도 잡아주시며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헤아려주시였고 농장벌에 가시어서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앉아 농사일을 의논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계시였는가를 실감케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이께서 조선로동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받들고 북부고산지대에 자원진출한 한 제대군인가정을 찾으시였을 때 제대군인의 안해는 그이께 태여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귀속말로 아뢰였다. 가장 가까운분, 친어버이가 아니고서는 결코 할수 없는 청탁이였다.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기꺼이 그의 청을 받아들여주시였다.



새집들이한 제대군인신혼부부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9년 1월

한평생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분투 해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11년 12월도 그렇게 보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2월의 첫 일요일에 평양에 있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었다.

그날은 류달리 춥고 맵짠 날씨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유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 시며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유희장의 종업원들이 좋은 날도 많은데 부디 굶은날에 오시였는가고 말씀드리자 이런 날에 자신께서 와야 인민 들이 좋은 날에 찾아온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시었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마련하기 위해 그이께서는 12월의 그 나날들을 다 그렇게 보내시었다.

어느날에는 하루동안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 구두공장을 비롯하여 함경남도안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 지도하시었다.

그 헌신의 나날에 그이의 건강상태는 악화되어갔다.

사실 그때 그이께서는 과도한 정신육체적과로로 서계시기 조차 힘든 상태였다. 이런 몸으로 그이께서는 2011년의 한해동안에 백수십개의 단위들을 찾으시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여오시었다.

불철주야의 로고로 쌓이고쌓인 그이의 무거운 병상태를



서흥군 범안협동농장 농장원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1년 7월



2.8비날론연합기업을 찾으시여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11년 1월

놓고 의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발 현지지도를 삼가해달라고, 다문 얼마동안이라도 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이께서는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시었다.

의사선생들, 정말 미안하오, 그러나 나는 동무들이 하라는 대로 할수가 없구만, 내가 하라고 하는대로 동무들이 복종 해주어야 하겠소라고 하시며 계속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었다.

정녕 그이는 자신을 초불처럼 깡그리 태워서라도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가실 철석의 의지를 지닌분이시었다.

서거하시기 이틀전인 12월 15일에도 어느한 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오랜 시간 현지지도하시며 자신의 정력을 다 바치시었다.

그 다음날에는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집무를 보시며 인민생활과 관련한 대책까지 세워주시고 그밤으로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그 현지지도의 련차에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었다.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다.

글 박경철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1년 1월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11년 12월



세계체육계에 또다시 파문을 일으킨 조선여자축구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미니카에서 국제축구연맹 2024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메히꼬팀, 케니아팀, 잉글랜드팀과 함께 조별리그 3조에 속하였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메히꼬팀을 4: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긴데 이어 케니아팀을 3:0, 잉글랜드팀을 4:0으로 압승하였다.

준결승경기에서 뽀스카팀을 1:0으로, 준결승경기에서 미국팀을 1:0

으로 타승한 우리 팀은 세계의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람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1월 3일(현지시간) 에스파냐팀과의 결승경기를 진행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시작부터 선수호상간 짜인 결합과 적극적인 공백맞기로 상대팀을 압박하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였다.

후반전에 들어와 먼저 실점을 당하였지만 경기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호상간협동을 강화하면서 완강한 공격을 들이대던 우리 팀에서 경기시간 66분경 7번 전일청선수가 결정적인

득점에 성공하였다.

1:1로 비긴 가운데 더이상 득점이 나지 않아 두 팀은 11m승부차기를 진행하여 우리 선수들이 에스파냐 선수들을 4:3으로 이겼다.

우리 나라 팀은 경기대회 조별리그경기부터 결승경기에 이르는 6차례의 대전에서 전승을 기록하였으며 도합 14개의 득점을 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나라 여자축구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전일청 선수에게는 최우수선수상인 금볼상이 수여되었다.

국제축구연맹 2024년 17살미만

우리 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 조별리그경기부터 결승경기에 이르는 6차례의 대전에서 전승을 기록하였으며 도합 14개의 득점을 하였다.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수들 국제축구연맹 2024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여자 축구팀은 우승을 쟁취하여 대회력사상 첫 3중월드컵보유팀으로 등장하여 세계체육계에 또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언론들은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도 3차례나 우승한 우리 나라 여자

축구팀이 이미 세계여자축구의 최강팀으로 등장하였으며 축구애호가들의 머릿속에 인박혀있는 고정관념인 《축구에 있어서 유럽, 아메리카우월론》을 완전히 뒤집어놓은데 대하여 평하였다.

글 박이철



FIFA U-17 WOMEN'S WORLD CUP
DOMINICAN REPUBLIC 2024™



우승점을 들어올리라

우리 나라의 손수림선수는 국제 권투연맹 2024년 세계청년권투 선수권대회 여자 60kg급경기에서 영예의 1위를 하였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쓰르나고라에서 진행된 국제권투연맹 2024년 세계청년권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손수림선수가 여자 60kg급경기에서 영예의 1위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까자흐스탄, 프랑스를 비롯한 70여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온 590여명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여자 60kg급경기에 출전한 손수림 선수는 예선에서 튀르키예선수와

그리스선수를 각각 5:0으로 이기고 준준결승경기에 올라가 메히꼬선수를 또다시 5:0으로 이겼다.

준결승경기에서 튀니지선수와 맞닥든 손수림선수는 기술적우세로 상대선수를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손수림선수는 결승경기에서 중국 선수를 3:2로 이기고 우승컵과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국제권투연맹 서기장 겸 최고집행관은

경기성과를 축하하면서 조선선수들의 기술수준이 대단히 높다, 60kg급경기에 진출한 손수림선수는 경기기술도 높지만 정신력이 대단히 강하다, 조선에서 여자권투발전에 관심을 돌린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였다.

소학교시절부터 권투를 시작한 손수림선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첫 우승점을 들어올렸다.

글 강수정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 수여모임 진행



가정과 후대들을 위하여, 조국의 튼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걸으며 혁명의 대, 계승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주는데 공헌한 여성들에게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이 수여되었다.

11월 14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된 수여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순동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향순동지, 녀맹일군들, 모범적인 녀맹원들 등이 참가하였다.

리일환동지가 수여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본분을 다하여 우리 시대 여성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을 마련한 어머니들에게 안겨주신 값높은 표창이라고 말하였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강국의 미래를 위해 수십년세월 사심

없이 바쳐온 어머니들의 진정과 헌신적인 노력은 위대한 신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사람들의 존경속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이런 혁명가, 애국자어머니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기에 우리 조국이 강하고 미래가 튼튼히 담보되는것이라고 하면서 항상 결곡하고 강직한 모습으로 혁명의 피줄기를 억세게 이어주는 어머니들이 앞으로도 건강한 몸으로 후대들을 애국의 한길로 굳세게 이끌어줄것을 당부하였다.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21명의 어머니들에게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 상장과 선물증서, 금반지가 수여되었다.

이어 축하토론과 결의토론이 있었다.
모임이 끝난 다음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수상자들을 축하하는 녀맹중앙예술선전대공연이 있었다.





푸른 꿈을 꽃피워준디

- 룡성구역 은하1유치원을 찾아서 -



유치원의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소질과 취미에 따르는 새 교수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아이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평양시의 룡성구역 은하1유치원은 2013년 9월 은하 과학자거리의 준공과 더불어 과학자자녀들을 위하여 세워진 보육교양기지이다.

시적으로 볼 때 유치원은 우수한 어린이보육 및 학령전 교육단위로 손꼽히고있다.

유치원에 대하여 평가할 때 동주민들은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에 앞서 이곳 교양원들의 높은 자질을 먼저 꼽는다.

지난 시기 유치원에서는 지능, 예능부문의 재간둥이들이 수많이 배출되었다.

조국의 미래를 키워간다는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어린이들의 교육교양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이곳 교양원들이다.

그들은 교육과정에 누가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력이 높고 보고듣고 느낀것을 형상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쓰는가, 누가 예술적감수성이 빠르고 노래를 하나 불러도 정확히 부르는

가 등 매 어린이들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있다.

그리고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 그에 맞는 교육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어린이들의 소질과 취미에 따르는 새 교육방법들의 적극적인 도입과정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교수경연, 분과 토론회과정에 제기되는 창발적인 의견들은 그대로 아이들의 지능계발과 교육교양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

지난해에도 이곳 어린이들은 제15차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유치원원장 박애숙은 《우리 유치원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은하1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을 미래의 위성과학자, 인재감들로 잘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지침이다.》라고 하였다.

사진 황정혁
글 김선경





제16차 평양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진행

《자주와 친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람회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160여개 기업체와 회사들에서 생산한 전기, 전자, 기계, 건재, 의학, 식료 등 선진과학기술이 도입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지난 11월 평양에서 제16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었다.

《자주와 친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람회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160여개 기업체와 회사들에서 생산한 전기, 전자, 기계, 건재, 의학, 식료 등 선진과학기술이 도입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전람회기간 경제교류와 협조를 위한 설명회도 있었다.

제16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는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도모하며 경제협조를 발전시키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 조선화보사 2024
화보 《조선》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중국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